

의사 전달적 기능으로서 영아기 신체접촉*

김 수 정¹⁾ 광 금 주²⁾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촉각적 의사전달에 대한 연구는 영아 상호작용 문헌에서 비교적 연구되지 않은 영역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인이 영아를 어떻게 신체접촉 하는가와 관련하여, 촉각적 감각 양식이 갖는 의사전달적 기능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신체접촉에 의해 영아에게 무엇이 전달되어지는가와, 성인이 영아에게 하는 신체접촉으로부터 어떻게 의미가 발생되는가이다. 신체접촉이 각성 수준을 조절한다는 일반적인 생각 외에도 특별한 정보 뿐 아니라 분리된 정서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신체접촉의 물리적 차원과 신체접촉으로부터 의미가 발생하는 기제(Gibson의 지각이론, 학습이론 그리고 인지이론)를 설명함으로써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였다. 이론적 고찰에 근거해 Hertenstein(2002)의 돌보는 사람-영아의 촉각적 의사전달 모델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영아기, 정서 전달, 촉각적 자극, 엄마-영아 의사전달, 신체접촉

* 본 연구는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광금주, 장유경, 성현란과 심희옥에게 지원한 기초학문 육성과제 (과제번호: KRF-2002-074-HM1006)의 일부이다.

1)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2) 교신저자: 광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E-mail: kjkwak@snu.ac.kr

I. 서 론

신체접촉은 세상과 접촉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으로(Barnett, 1972) 그리고 모든 감각 체계 중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언급되어 왔다(Geldard, 1960). 엄마와의 신체접촉은 어린 영아가 세상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일차적인 도구로써 영아의 전반적인 신체 심리적 발달에 토대가 될 수 있다. 특히 어린 영아는 신체접촉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엄마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특히 신체접촉의 여러 유형은 영아의 내적 상태를 완화시킬 능력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Paez-Nogueras et al., 1997). 이런 조절 기능은 발달 초기에 결정적이 될 수 있어서, 이후 발달에서 신체접촉은 영아가 스트레스적 사건과 높은 수준의 각성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신체접촉은 표현적이고 의사전달적 감각 양식과 더불어 돌보는 사람과 영아 간 일어나는 상호 조절의 결정적 성분이며, 영아가 타인을 어떻게 알아가며, 경험해 가는 것에 대한 결정적 성분이기도 하다(Tronick, 1989).

따라서 영아기의 신체접촉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특징은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적, 인지적, 그리고 신체적 발달을 포함하여 영아 삶의 여러 영역에서 신체접촉의 중요성을 시사해 왔다(Hertenstein & Campos, 2001; Stack, 2001).

그러나 신체접촉의 중요성 중, 특히 신체접촉의 의사전달적 기능은 무시되어 왔으며, 영아 상호작용 문헌에서 비교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Field, 2002). 의사전달의 통로로써 신체접촉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약 10년 전부터이다(Muir, 2002).

신체접촉이라는 비음성적 의사전달은 영아의

초기 유능성과 사회적 세계에 대한 적응을 촉진시키는 부모행동 레파토리의 일부이다. 엄마의 행동 가령, 얼굴표정, 목소리, 신체접촉 등은 의미를 전달하며 서로 대응되어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대응 가능성이 풍부한 의사전달적 통로가 되어, 잠재적으로 엄마와 영아의 애정적 표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Weinberg & Tronick, 1994).

따라서 현 논문에서 성인이 영아를 어떻게 신체접촉 하는가와 관련되어, 촉각적 감각 양식이 갖는 의사전달적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행해지는 신체접촉에 의해 영아에게 무엇이 전달되어지는가와, 성인이 영아에게 하는 신체접촉으로부터 어떻게 의미가 발생되는가의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체접촉의 물리적 차원을 언급하고, 신체접촉으로부터 의미가 발생하는 3가지 기제를 언급함으로써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돌보는 사람-영아의 촉각적 의사전달 모델과 연구의 미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신체접촉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한 탐색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여기서는 성인이 영아에게 하는 신체접촉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II. 신체접촉에 대한 정의

신체접촉이라는 단어는 의미론적으로 풍부하다. 사실상, *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는 신체접촉을 정의하기 위해 수백 줄을 썼다(Reite, 1990). 신체접촉은 두 가지 분리될 수 있는 현상으로 언급된다: (1)피부에 대한 대상의 행동과 (2)피부의 감각체계에 의한 정보의 등록(일반적 용법으로

우리가 느낌으로 부르는 것). 영아의 피부와 돌보는 이의 온도에 대한 촉각적 자극의 역동성은 단어에 대한 전자의 감각 측면이 될 것이고 반면에 신경계의 활성화(예를 들어, 고통 수용기)나 간지러운 느낌은 후자 측면이 될 것이다(예를 들어, 감각 등록).

신체접촉과 의사전달 간의 관계는 여기서 언급한 신체접촉의 총체적 측면과는 다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신체의 같은 부위에 똑같은 신체접촉의 특성을 사용하여 두 명의 영아를 간질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나(신체접촉 정의의 전자의 의미), 단지 한 영아만이 간지러움을 타고, 나머지 다른 한 영아는 자극에 무관심하다(신체접촉 정의의 후자의 의미). 즉 영아에게 수반되는 촉각적 자극 패턴과 영아가 수용하는 것이 동일 구조는 아니다. 두 의미 간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체접촉, 촉각적 자극, 그리고 촉각적 패턴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피부에 대한 대상의 행위와 신체접촉의 감각적 수용에 대한 느낌을 언급하기 위해).

신체접촉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광범위하지만, 의사전달의 두 측면에서 언급될 수 있다. 첫째로, 신체접촉은 돌보는 사람의 의도나 감정을 영아에게 전달할 수 있다. 가령, 돌보는 이는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정서 상태가 영아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 대조적으로 돌보는 이의 의도나 감정이 영아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영아의 지각, 사고, 감정, 또는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령, 돌보는 이가 아무 생각 없이 영아에게 불쑥 신체접촉 함으로써 영아에게 부적 정서를 유발시킬 수 있으나, 자신은 그런 부적 정서를 느끼지 않는다.

신체접촉의 의사전달적 특성은 세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첫째, 돌보는 이가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 영아에게 촉각적 자극을 하는 것에 주의

를 기울이느냐 하는 것이다. 기저귀를 갈아 줄 때, 엄마는 영아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동적으로, 다른 일을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다. 대조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주는 에피소드를 염두해 두고 어떻게 신체접촉 하는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엄마들도 있다.

의사전달에 대한 두 번째 특성은 돌보는 이의 의도성 여부이다. 돌보는 이의 의도성이 ‘진실한’ 의사전달의 준거가 되는 가는 계속 토론되었다(Andersen, 1991; Bavelas, 1990; Hinde, 1997). 행동은 의도적으로 보여지고 ‘진실한’ 의사전달에 대해 목표 지향적이 되어야 한다(Watzlawick, Beavin, & Jackson, 1967). 반면에 의도는 의사전달의 준거가 되지 않아도 된다(Hinde, 1997). 즉 돌보는 사람이 의사전달을 위해 의도적으로 영아에게 신체접촉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기저귀를 갈아주는 동안 거친 신체접촉을 하는 아버지는 무의식적이라고 해도 영아에게 거친 신체접촉으로 의사전달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똑 같이, 힘든 고된 일을 마친 후 영아를 안는 엄마는 비록 의도하지 않더라도 영아에게 그녀의 불안을 의사전달 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성은 돌보는 이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의사전달과 영아의 정서유발 간의 연결을 포함한다. 이 특성은 돌보는 이의 정서적 경험이 영아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으나 그 정서는 영아에게 유발되지 않을 수 있다. 영아는 돌보는 이가 무섭다는 것을 지각할 수 있으나, 공포 그 자체가 영아에게서 유발되지는 않는다. 돌보는 이는 피곤하다는 것을 의사전달 할 수 있으나, 이것이 반듯이 영아에게 피곤을 유발시키지는 않는다.

이처럼 신체접촉은 많은 차원을 가진 복잡한 자극이나, 성인-영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동안 돌보는 이의 의사전달의 두드러진 통로가 되며, 돌보는 사람과 영아간 일어나는 상호조절의 결정적

성분이고 영아가 타인을 어떻게 알아가며, 경험해 가는 가에 대한 결정적 성분이다.

의사전달에서 무시되었던 감각양식으로서의 신체접촉

신체접촉이 영아-돌보는 이의 상호작용에서 주요한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되었던 감각양식이다. 미국의 영아는 상호작용 동안 시간의 68% 동안 신체접촉 받았으며(Stack & Muir, 1992), Kalahari 사막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Kung족을 포함한 문화권에서는 상호작용의 75% 동안 아기를 신체접촉 한다(Konner, 1976). 자이레에 거주하는 Efe부족도 Kung족과 비슷한 양의 신체접촉을 한다(Tronick, 1995). 이처럼 신체접촉은 영아와 돌보는 이의 상호작용에서 큰 영역을 차지한다.

따라서 영아-돌보는 이의 관계에서 신체접촉이 갖는 명백한 보편성으로부터 흥미 있는 가설이 도출될 수 있다. Lorenz(1943)는 영아의 신체적 특징이 아기스러움이라 칭하는 특성을 구성하며, 이런 특징이 부모로 하여금 자손을 돌보게끔 자극한다고 가정한다. 현재로서는 이런 가정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없으나, 영아-돌보는 이의 관계에서 신체접촉의 보편성을 숙고한다는 것은 분명히 흥미로운 일이다.

신체접촉이 정서와 다른 정보의 의사전달에 대한 강력한 감각 체계일 수 있는데 사실상, 의사전달에서 신체접촉 역할에 대한 문헌은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연구가 부족했던 일차적인 이유는 방법론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촉각적 형태는 매우 복잡하므로 행위에서 다양하고 강도, 속도, 압작스러움, 온도, 위치, 빈도, 지속, 그리고 신체접촉 되는 영역에서 다양하다. 즉 상호작용으로부터 신체접촉의 특별한 형태에 대한 정확한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촉각적 자극을 측정하기 위해 코딩시스템이 고안되었지만(Stack, LePage, Hains, & Muir, 2001; Stepakoff, Beebe, & Jaffe, 2000; Weiss, 1992), 특별히 표준화된 것은 없다. 아마도 정교하게 촉각적 경험을 측정할 수 있다면 신체접촉의 의사전달 기능에 대한 연구는 진일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I. 의사전달 기능으로서의 신체접촉

신체접촉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었음에도 신체접촉이 영아를 달래는 등의 내적 상태를 조절한다는 점과(Montagu, 1986). 다른 의사 전달적 기능을 할 수 있음(Pelaez-Nogueras et al., 1997; Stack & Muir, 1992)이 지적되었다. 기능주의자들의 입장에 의하면 같은 의사 전달적 결과가 많은 다른 통로를 경유하여 성취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사전달의 두 가지 특정 통로인 청각(가령, 목소리)과 시각(가령, 얼굴)이 있다. 만약 이 감각 양식이 의사전달에서 작용되면, 촉각적 감각 양식도 영아에게 의사 전달의 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체접촉에 의해 의사전달 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으며, 신체접촉의 의사 전달적 기능을 주장하는 연구들의 고찰함으로써 무엇이 전달되는 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체접촉을 통해 정서가 전달될 수 있다. 신체접촉은 쾌락적으로 Valenced Emotion을 전달할 강력한 감각 체계가 될 수 있다. 피부도 직접적으로 향락적 가치를 발생시킬 수용기를 포함한다. 향락적 과정은 정서 발생에서 초기단계 중의 하나이므로(Campos, Mumme, Kermoian, & Campos, 1994), 피부는 정서 연구의 중추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신체접촉이 정적·부적 정서를 전달하며, 특별한 정서인 개별화된 정서

및, 특별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주장하는 문헌의 일부를 고찰하면서 정서가 갖는 의사 전달적 기능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첫째로, 신체접촉을 통해 정적 정서가 유발될 수 있다. Wolff(1963)에 의하면 잘 알려진 pat-a-cake 게임은 영아에게서 정적 정서를 유발시키는 효과적인 놀이이다. 영아는 상호작용 하는 성인을 보지 않거나 목소리를 듣지 않고도 촉각적 자극만을 통해 미소를 유발하면서 놀이를 할 수 있다.

신체접촉이 또 다른 형태의 강화 자극에 대한 정적 강화치를 갖는다는 것이 보고되었다(Pelaez-Nogueras, Gewirtz, Field, & Cigales, 1996b).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극에 대한 영아 선호를 측정하기 위해 유관성에 근거한 기법(동시 발생적인 강화 절차)을 사용했다. 실험자에게 눈맞춤을 하는 영아에 대해 두 개의 강화인, 즉 얼굴, 목소리를 포함하는 자극들과 성인의 신체접촉 대 신체접촉이 포함되지 않은 자극이 사용되었다. 신체접촉을 받은 1.5개월-3.5개월의 영아는 신체접촉을 받지 않은 영아보다 더 많이 웃고 소리를 냈으며, 덜 울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2개월-4.5개월 된 영아들이 실험자에게 눈 맞춤을 할 때, 영아에게 간지름을 태우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과 쓰다듬기의 효과를 비교했다(Pelaez-Nogueras et al., 1997). 쓰다듬기의 신체접촉을 받은 영아들은 간질이기와 찌르기를 받은 영아보다 더 웃고 소리내고 덜 울었다. 이런 결과는 신체접촉의 특정 유형이 정적 정서를 유발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신체접촉은 SF절차(still-face) 동안 영아에게서 미소를 유발시킨다. Still-Face절차는 대면(face-to-face) 상호작용을 변경한 것으로, 신체접촉의 중요성을 검사하기 위한 도구이다. Still-Face는 엄마가 무표정한 얼굴로 소리도 내지 않고 영아를 만지지도 않을 때, 나타나는 영아의 반응을 보기 위한 절차로 어린 영아의 사회성 발달을

알아보는 절차이다. SF상황에서 엄마에게 신체접촉할 것을 지시를 했을 때, 신체접촉을 받은 영아는 그렇지 못한 영아보다, 인상을 덜 찌푸리고 더 많이 웃었다. 이처럼 신체접촉은 부정 정서를 조절할 뿐 아니라 정적 정서를 발생시킨다(Stack & Muir, 1990;1992).

둘째로, 신체접촉은 부정 정서도 유발시킨다. 16-20주된 여아에게서 미소를 강화시킬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자극을 탐색했다 (Brossard & Decarie, 1968). 영아를 들어 올렸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영아의 배 부위에 약간의 압력이 느껴지도록 성인의 손을 올려놓았을 때(가령, 靜적인 신체접촉), 30초가 지난 후에 영아의 미소가 강화되었다. 게다가 영아는 정적으로(statically) 신체접촉을 받았을 때, 강한 긴장까지 보였다. 따라서 신체접촉의 일부 유형, 특히 정적인 고정된 신체접촉은 영아에게 혐오감의 부정 정서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것 같다.

Hertenstein와 Campos(2001)는 엄마의 신체접촉이 12개월 된 영아에게서 부정 정서 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을 향한 도구적 행동을 조절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 엄마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동안, 영아에게 연속적으로 생소한 대상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대상이 제시될 때, 엄마는 갑자기 숨을 들어 마시면서 손가락으로 영아의 배 부위를 갑자기 누르는 촉각 자극을 사용함으로써 영아에게서 부정 정서를 유발시켰다. 그 결과 영아는 대상을 덜 만졌고 통제집단의 영아와 비교했을 때, 부정 정서를 더 보였다. 이런 연구는 신체접촉이 영아의 정서뿐 아니라, 대상을 향한 도구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신체접촉은 영아에게 정적 정서뿐 아니라 부정 정서도 유발시킨다.

셋째로, 정적 또는 부정 정서 이외에도 신체접

촉에 의해 특별한 정서, 즉 개별화된 정서가 전달된다. 소위 ‘기본 정서’라고 부르는 정서의 한 특성은 중다 감각적이라는 것이다. 즉 슬픔, 공포, 분노, 기쁨, 놀람, 그리고 혐오와 같은 정서는 얼굴과 목소리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Walker-Andrews, 1997). 일반적으로 거리, 방향, 속도와 같은 현상도 신체접촉에 의해 설명된다(Stern, 1985). 영아는 정서를 지각하기 위해, 이런 시간적 공간적 단서를 사용한다. 가령, 돌보는 이가 갑작스럽게 강하게 영아를 잡았다가 놓아서 피부가 상대적으로 뜨거워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을 할 때, 이는 분노로 설명될 수 있다. 특정한 정서의 전달을 지지하는 경험적인 증거는 많지는 않지만 몇몇 시사적인 증거들도 있다.

한 연구(Stack & LePage, 1996)에서는 엄마를 5.5개월 된 영아와 face-to-face 상호작용을 시킨 후에 3개의 SF 상황에 참여시켰다(정상적 신체접촉 상황, 미소를 극대화시키는 신체접촉 상황, 신체의 한 영역을 구속하는 신체접촉 상황). 통제집단의 엄마들은 자녀와 4단계의 정상적 상호작용을 하게 했다.

결과에 의하면 자연스런 상호작용 장면과 모든 SF단계는 의미 있게 달랐고, 각 SF간의 차이가 있었다. 가령, 미소를 극대화시킬 것을 요구 받은 엄마는 더 활동적인 신체접촉 유형을 사용했고(간질이거나, 들어올린다), 강도와 속도가 세고 빨랐다. 단지 신체의 한 부분을 신체접촉 하도록 했을 때 쓰다듬는 신체접촉 유형이 증가되고 흔드는 유형은 감소되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영아가 신체접촉의 존재여부보다는 신체접촉의 특별한 특성에 민감하다는 것과 엄마들이 신체접촉을 사용하여 영아로부터 특정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연구(Dickson, Walker, & Fogel, 1997)에 의하면 촉각적 자극을 포함하는 신체적 놀이는

영아에게서 더 많은 웃음을 유발시켰다. 영아와 신체적 놀이를 하는 아버지를 관찰한 결과, 아버지가 얼굴과 손가락으로 영아의 뺨을 간질일 때, 영아의 웃음소리는 접촉되는 강도나 속도에 따라 변화되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영아의 뺨 위에 얼굴을 간질이기를 하면 영아는 자지러지게 깔깔대며 웃었다. 이는 신체접촉의 특성이 비록 다른 감각 양식과 혼합된다해도 영아에게서 특별한 반응(예를 들어, 깔깔대고 웃거나, 약간의 미소만을 짓는 등)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영아는 신체접촉의 특성과 매개변수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더 많은 경험적 증거들이 이런 가정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위의 연구결과들은 영아가 개별화된 정서에 민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넷째로, 정서적 내용 이외도 촉각적 전달은 특별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Tronick, 1995). 신체접촉은 접촉하는 사람의 정체성이나 돌보는 이의 현존이나 부재를 전달할 수 있다. 신체접촉을 받은 영아는 엄마의 존재를 느끼게 되며, 엄마의 접촉으로부터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 그런 안정감은 영아에게 세상을 대한 신뢰감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Tronick(1995)은 신체접촉이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증거로서 두 개의 연구를 보고했다. 첫 연구에 의하면 질적으로 다른 신체접촉의 유형(가령, 쓰다듬기, 울동적 신체접촉, 잡기, 간질이기, 뽀뽀하기, 찌르기, 그리고 꼬집기)이 6개월 된 영아와 상호작용 하는 동안 엄마에 의해 사용되었다. 쓰다듬기, 울동적 신체접촉, 그리고 잡기는 대부분 잦은 간질이기와 뽀뽀하기 후에 일어난다; 찌르기와 꼬집기는 가장 적게 일어난다.

두 번 째 연구는 엄마-영아 상호작용에서 신

체접촉의 독립적 역할, 시각, 목소리를 조사했다 (Brown & Tronick, unpublished, as cited in Tronick, 1995). 이 연구에서는 5가지 조건에 영아를 참여시켰다. 첫 번째 조건은 엄마가 말하거나 신체접촉하고 소리를 내는 정상적 상호작용 조건이다; 둘째 조건은 엄마를 볼 수만 있는 조건이다; 셋째 조건은 엄마의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다; 넷째 조건은 엄마의 신체접촉을 느낄 수만 있는 조건이다; 다섯째 조건은 영아 홀로 남겨진 조건이다. 정상적 놀이상황과 얼굴만 볼 수 있는 조건의 영아와 비교했을 때, 신체접촉만을 받은 영아는 애정적으로 행동적으로 억제된 방식으로 반응했으나, 짜증이나 울음을 덜 보였으며, 스트레스도 덜 받았다. 그리고 대상에 집중을 더 잘 했으나, 미소는 덜 지었다.

이런 연구 자료에 근거하여 신체접촉의 특별한 유형이 영아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예를 들어, 신체접촉을 받을 때, 주의를 더 잘 집중한다거나, 행동을 억제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덜 보이는 등), 그런 메시지는 안면표정과 같은 다른 애정표현에 의해 전달되는 메시지만큼 특별하다는 사실이 시사되었다 (Stack & Muir, 1992; Tronick, 1995).

한편 애착 영역은 신체접촉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에 대해 명백히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애착이론가들은 부모-영아의 신체적 접촉 특성을 영아의 안전감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반응적이고 유용한 돌보는 행위의 중추적 특성으로 간주해 왔다(Ainsworth, Blehar, Water, & Wall, 1978).

많은 애착이론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영아가 내적 작업모형을 발달시키고 작업모형에서 영아는 돌보는 사람-영아의 상호작용적 역사를 표상하게 된다(Bretherton, Biringen, Ridgeway, & Maslin, 1989; Sroufe, 1996). 따라서 돌보는 사람이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용한 사람으로 표상되는 내적 작업모형은 안전애착관계를 이끄는 반면, 돌보는 사람이 유용하지 않거나 비일관적으로 반응하는 내적 작업모형은 불안전 애착 관계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영아가 고통상태에 있을 때, 돌보는 사람이 영아의 이런 상태에 민감하다면, 영아에게 신체접촉을 제공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영아의 고통 반응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민감하지 못한 양육자는 영아에게 마지못해 신체접촉을 하거나 또는 어설프게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안정감을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Ainsworth et al., 1978).

엄마 신체접촉과 영아 애착 유형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Weiss, Wilson, Hertenstein & Campos, 2000)에서 엄마가 3개월 된 영아에게 수유하는 상황을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엄마 신체접촉, 엄마 민감성, 그리고 영아 반응성이 코딩되었고, 생후 12개월경 영아의 애착이 측정되었다. 엄마가 영아에게 하는 접촉의 빈도와 지속과 9개월 이후의 영아 애착 분류간에 어떤 관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경에 양육적 신체접촉을 받은 영아는 그런 접촉을 덜 받은 영아와 비교했을 때, 12개월에 안전 애착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영아의 취약성 정도(가령, 분만 시 여러 복잡성, 저 체중, 반응성)가 양육접촉의 효과에 영향을 주었다. 즉 양육적 신체접촉은 건강한 영아에게서는 안정 애착과 상관을 더 보이지만, 매우 취약성이 높은 영아의 안정애착과는 관련성을 잘 보이지 않았다. 이런 발견은 영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신체접촉의 빈도라기보다는 신체접촉의 특성(이 경우, 건강한 영아에게는 양육적 신체접촉)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접촉의 특성(quality)과 매개변수(parameter)가 의사 전달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된다.

IV. 신체접촉의 특성과 매개변수

신체접촉이 의사전달적인 기능을 하지만 이것이 영아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가 논의되어야 한다. 우선 의사전달하기 위해 돌보는 사람이 사용하는 신체접촉의 특성과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 영아들이 사용하는 잠재적 기제가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영아들이 몸담고 있는 맥락과 신체접촉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영아는 매일의 일상에서 많은 신체접촉에 노출되어 있다. 가령, 돌보는 사람은 영아를 사랑스럽게 안거나, 쓰다듬어 주거나, 뽀뽀하거나, 포옹하거나, 코로 비비거나, 토닥거리거나, 가볍게 두드리거나, 음식을 먹이거나, 애지중지하거나, 꼭 껴안거나, 꼬집거나,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긁어주거나 한다. 이런 신체접촉의 형태는 돌보는 사람 뿐 아니라 상황적 맥락에 의존한다. 신체접촉의 모든 형태(김수정, 광금주, 장유경, 성현란, 심희옥, 2003)는 많은 특정 차원 내에서 개념화되어질 수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신체접촉을 서술하기 위해 분석적 틀을 제공했다(Weiss, 1992; Weiss & Campos, 1999). Weiss등(1999)의 개념적 틀에 의하면, 신체접촉의 4가지 ‘질적 특성’은 지속성, 접촉 부위, 유형, 강도이다. 이런 틀에 기초를 두고, 신체접촉의 특정 형태가 영아에게 어떻게 의사전달 되는가가 이해되어야 한다.

신체접촉의 의사전달 기능을 검사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신체접촉의 특징과 매개변수보다는 신체접촉의 양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촉각적 경험은 단순히 신체접촉 존재 여부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능동적 형태의 신체접촉과 비교하여, 수동적인 신체접촉은 부적인 정서적 행동 배열을 초래시킨다(Stack & Muir, 1990; 1992). 그러나 촉각적 의사전달은 수동적 대 능

동적 신체접촉의 이분법적 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신체접촉의 존재여부가 아니라 신체접촉의 특성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신체접촉을 감각 양식으로써 간주할 때, 신체접촉의 특성(quality)과 매개변수(parameter)가 고려되어야 한다. 신체접촉의 특성(능동적 대 수동적 신체접촉, 또는 양육적 대 거친 신체접촉 등)은 영아에게 수반되는 실제적인 촉각적 자극의 세부특징(features)을 언급하는 것인 반면, 신체접촉의 매개변수(가령, 접촉 부위, 지속, 빈도, 유형)는 얼마나 많은 신체접촉이 수반되고 신체의 어느 곳이 접촉되는가를 말한다.

의사전달은 이런 모든 구성성분이 함께 조직화될 때 일어난다. 또한 촉각적 형태 내에서 신체접촉의 많은 특성과 매개변수들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돌보는 사람의 신체접촉 강도는 신체접촉 부위에 의존하면서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시킨다. 예를 들어, 돌보는 사람이 2cm가 들어갈 정도로 영아의 배 위를 누른다면 이는 미소를 유발시킬 수 있으나, 같은 신체접촉을 얼굴에 했을 때는 혐오감이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신체접촉의 특성과 매개변수에 따라 영아에게 야기되는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좀더 자세하게 신체접촉의 세부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신체접촉의 특성

첫 번째 특성은, 접촉의 유형(Action)이다. 신체접촉의 유형은 쓰다듬기, 흔들어 주기, 안기, 꼭 잡기 등과 같은 특정한 움직임을 언급한다. 유형에 따라 영아는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가령, 영아를 찌르는 것은 쓰다듬어 주는 것보다 다른 조절적인 효과를 갖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신체접촉의 강도(Intensity)로, 이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부를 움푹 들어가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력의 정도를 언급한다. 강

도는 매우 가벼운 것(이런 신체접촉은 영아에게 하위 역치가 될 수도 있다)에서부터 강한 압력으로까지 광범위하다. 다양한 강도는 다른 정도의 신경계 활성화를 초래시킬 것이다. 이처럼 신체접촉의 조절적 효과는 신체접촉의 강도에 의존하면서 광범위하게 변화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신체접촉의 속력(Velocity)으로, 돌보는 사람이 영아 피부에 압력을 가하거나 맞은편 피부로 이동해서 누르는 비율을 언급한다. 측정치는 거리를 움직일 때 사용되는 시간으로 신체접촉의 거리를 나눈 값이다(millimeters/milliseconds). 이와 반대되는 상황에서는 돌보는 사람이 영아의 몸에서부터 자신의 몸을 분리시키는 비율치가 측정된다.

네 번째는 접촉의 돌발성(Abruptness)이다. 신체접촉의 돌발성은 신체접촉의 속력과 비슷하지만, 영아를 접촉하는 가속도나 감속도를 언급한다. Hertenstein 등(2001)에 의하면 영아의 복부를 갑작스럽게 신체접촉 하는 것은 영아의 정서적 배열(통제집단보다 눈살을 더 찌푸린다)과 대상을 향한 도구적 행동(통제집단에 비해 덜 접촉하고)을 조절한다.

다섯번째는 접촉할 때의 온도로, 돌보는 사람의 피부 온도는 신체접촉의 특성과 관련된다. 신체접촉이 갖는 선천적인 관계성 때문에 온도지각은 돌보는 사람과 영아의 피부온도에 의존한다. 사람의 손가락 온도는 특정 정서와 영아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개별적 정서(가령, 공포나 분노)에 따라 변한다(Levenson, 1992). 돌보는 사람의 차가운 손은 영아에게 공포를 설명할 수 있는 반면, 따뜻한 손은 분노를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신체접촉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으며, 신체의 어느 곳이 접촉되는가에 따라 의사전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접촉 특성과

상호작용 하는 신체접촉의 매개변수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신체접촉의 매개변수

첫 번째의 매개변수는 신체접촉 부위이다. 이는 돌보는 이가 영아 신체의 어디를 접촉하는가를 언급한다. 어떤 신체접촉 유형의 의미는 영아가 접촉을 받는 특정 부위에 따라 다르게 전달된다. 영아는 돌보는 사람이 발 밑바닥을 어루만질 때와 이마 위를 어루만질 때를 다르게 지각한다. 영아는 등 아래와 비교하여, 입과 볼 주위에 매우 민감하며, 이런 신체부위에서의 촉각적 자극에 대해 매우 섬세하게 공간적 변별을 한다.

두 번째는 신체접촉의 빈도로, 영아가 접촉을 받는 수(또는 양)를 말한다. 가령, 팔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은 신체접촉의 빈도로 간주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신체접촉의 지속으로, 접촉의 시작과 종료 사이에 경과된 시간을 말한다. 상호작용하는 사람 중, 어떤 한 사람이 접촉을 개시하고 둘 중 하나가 그것을 종료시킨다. 영아가 더 오래 접촉 받으면 받을수록 더 오래 촉각적 정보를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촉각적 의사전달과 관련되는 신체접촉의 지속은 중요하다. 게다가 반복되는 신체접촉은 감각적 적응이나 습관화를 초래시킬 수 있으므로, 영아가 신체접촉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Weiss & Campos, 1999).

네 번째는 신체접촉 받은 피부 영역으로, 돌보는 사람이 영아를 접촉할 때, 포함되는 표면 영역을 말한다. 신체접촉은 여러 차원을 갖는다. 이런 복잡성 때문에 촉각적 의사전달은 선천적으로 관계적이라 할 수 있다(Stack, 2001). 즉, 신체접촉 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 없

다. 온도지각은 신체접촉의 관계적 특성을 설명하는 특별한 예가 된다. 영아의 온도는 하루의 시간뿐 아니라 영아가 경험하는 각성 수준과 정서에 따라 변한다. 영아 신체의 온도가 따뜻하면 돌보는 사람의 신체접촉은 차가운 것으로 지각되는 반면, 영아의 온도가 차가울 때, 신체접촉은 더욱 따뜻한 것으로 지각된다. 이처럼 하루의 시간과 영아의 정서상태에 따라 같은 온도의 신체접촉도 다르게 경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체접촉의 물리적 차원을 조사할 때, 촉각적 의사전달의 관계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신체접촉의 물리적 차원인 신체접촉의 특징과 매개변수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돌보는 사람의 촉각적 자극이 영아에게 어떻게 의미있게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아직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신체접촉이 영아에게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가에 대해 심리학 이론에 근거한 3 가지 방식을 통해 설명할 것이다.

V. 의미전달로서의 신체접촉

의미는 신체접촉이 신경체계에 영향을 주는 방식과 문화적, 개인적 의미가 신체접촉의 특정한 특성과 매개변수에 귀인하는 방식에서 유발된다(Weiss & Campos, 1999). 본 연구에서는 영아가 신체접촉으로부터 의미를 어떻게 습득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3 가지 심리학적 방식인 직접적 지각, 학습, 그리고 인지적 과정을 통해 신체접촉이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영아는 직접적인 지각을 통해 신체접촉으로부터 의미를 전달받는다. 유기체는 직접적으로 자극배열에서 의미를 지각하므로 더 높은 인지적

과정이나 의미를 구성하는 이전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Gibson, 1979). 즉 영아는 이런 방식으로 안면 표정으로부터 의미를 지각한다(Walker-Andrews, 1997). 가령, 찡그린 얼굴이나 화난 표정에서 불쾌감, 또는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지각할 수 있다.

Gibson의 관점에서, 자극(이 경우, 촉각적 자극)은 공간과 시간에 걸쳐 펼쳐있는 풍부하게 구성된 정보의 원천이며, 더 높은 위계의 불변인을 포함한다. 이런 불변인은 단순히 감각적 자극보다 더 높은 추상적 수준에서 존재하며, 자극 내 존재하는 시공간적인 관계(가령, 촉각적 자극의 속도와 갑작성)를 말한다. 이런 높은 위계의 불변인은 유기체에 의해 탐지되며, 자극 배열에 대해 의미를 제공한다. 따라서 신체접촉은 정적(static)이지 않으며, 시간적으로 얽매이지도 않는다. 그것은 선천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 같다. 가령, 엄마가 강한 강도로 영아의 볼을 때렸을 때, 그런 촉각적 자극에서 강한 불쾌감이나, 공포를 지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그런 비슷한 유형의 자극을 경험할 때도 비슷한 정서를 지각한다. 이와 반대로 엄마의 부드러운 포옹을 통해 영아는 안정감이나 행복감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지각하게 된다. 영아를 양육할 때, 엄마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없이 많이 영아를 접촉한다. 따라서 공간에 존재하는 많은 접촉 자극을 경험하면서 영아는 그런 자극마다의 특징을 지각하고, 그런 자극으로부터 추상적 개념인 높은 위계의 불변인(가령, 공포감, 안전감 등)을 추출하면서 세상을 경험한다.

Gibson에 의하면 더 높은 위계의 불변인은 중다 감각 양식적으로 설명된다. 즉 청각과 시각적 감각양식에 존재하는 똑같은 위계순서의 불변인이 촉각적 감각양식에도 존재한다. Walker-Andrews (1997)의 주장에 의하면 영아는 중다 감각 양식

에 걸쳐있는 불변인인 의미를 추상화함으로써 사회적 신호를 인식하고, 이런 높은 위계의 불변인은 독특한 의사전달적 의미를 산출시킬 수 있다. 비록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용한 자료들은 없지만 영아는 촉각적 감각 양식에 의해 추상적 개념을 발견해 내는 것 같다. 따라서 경험적인 조사를 통해 직접적인 지각이 촉각적 의사전달에서 하는 역할이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Gibson 이론은 촉각적 의사전달에 대해 두 가지 발달적 시사점을 제공한다(Gibson, 1969). 첫 번째로 자극에서의 정보와 영아에 의해 실제로 지각되는 것 간의 일치는 발달에 따라 특수성을 증가시킨다. 즉 지각은 더욱 더 정확해지고 분화된다. 가령, 와인 맛을 보는 초보자들은 두 가지의 흰색 와인의 맛을 구별하지 못하는 반면, 와인의 감식가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 맛을 구별한다. 이처럼 사회적인 촉각적 경험이 부족한 신생아들은 오랜 촉각적 자극을 경험한 나이 든 영아들처럼 섬세하게 의미를 지각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발달에 따라 선별되는 정보의 절약성이 증가될 것이다. 촉각 시스템은 인간 태아에게서 가장 먼저 발달되고 출생에 의해 더 잘 발달된다(Maurer & Maurer, 1988). 정보를 탐지하고 추출하는 기제는 출생부터 현존하며 (적어도 미성숙한 형태로), 시간에 따라 더 효율적이 된다. 따라서 발달하면서 영아는 자극 내에서 개별적인 세부특징을 선별하고 불변인을 추출한 결과, 신체접촉을 통해 의사전달을 초래시킨다.

다음으로 영아는 학습을 통해 신체접촉으로부터 의미를 갖게 된다. 학습이론에 의하면, 영아는 촉각적 형태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신체접촉과 환경적 사상 간의 관계를 연합시킨다. 학습의 3가지 형태인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그리고 관찰 학습이 영아가 여러 촉각적 형태로부터 의미를 이끌어 내는 것에 영향을 준다.

신체접촉은 고전적 조건화를 통해 영아에게 의미 있게 된다. 학습된 자극(가령, 촉각적 자극)과 학습되지 않은 자극(가령, 반응을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어떤 사건들) 간의 반복되는 연합으로 전자는 똑같은 행동을 유발시킬 능력을 습득한다. 가령, 돌보는 사람은 영아를 보고 얼굴을 찌푸릴 수도 있으며(조건화되지 않은 자극), 그럼으로써 영아가 돌보는 사람이 하는 혀를 오그라뜨리는 행동(조건화되지 않은 반응)을 하게 된다. 얼굴을 찌푸리기 전에 돌보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영아의 팔을 꼭 잡을 수 있다(조건화된 자극). 돌보는 사람의 신체접촉과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반복적으로 짝 지워지면, 영아는 결국에 신체접촉을 한 다음, 나오는 돌보는 사람의 반응인 혀를 오그라뜨리는 반응을 하게 된다. 이런 학습 기제에 의하면 신체접촉은 영아에게 선천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자극의 대응으로 작용한다(Frank, 1957).

영아는 조작적 조건화를 통해 신체접촉에서 의미를 전달받는다. 특정한 촉각적 형태는 신체접촉으로부터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별적 자극으로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영아는 비틀거리다 땅바닥에 넘어질 수도 있으며 돌보는 사람은 다가와 영아의 등을 토닥토닥 두들길 수 있다. 영아가 이런 특정한 촉각적 자극 출현으로 미소 지을 때, 영아는 환경이 경우 돌보는 사람을 조작하는 것으로, 이는 돌보는 사람에게서 나온 행동을 고무시켜서 계속된 구조의 행동을 유발시키게 한다. 이처럼 조작적 행동(영아의 미소)은 변별적 자극(등을 토닥토닥 두들기는 것)의 출현에서 정적 강화인(돌보는 사람이 제공하는 격려와 도움행동)에 의해 수반된다. 많은 학습 경험 후에 등을 두들기는 것은 변별적 자극으로 작용하여, 영아가 미래의 특정한 촉각적 자극 출현에 미소 짓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할 것

이다. 이처럼 영아가 다른 환경적 사상과 의 연합으로 등을 토닥토닥하는 행동으로부터 격려와 도움행동이라는 의미를 끌어낼 수 있게 된다.

또한 관찰 학습에 의해 특정 형태의 신체접촉에서 의미를 이끌어 낸다(Bandura, 1965). 즉 영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체접촉을 받는가와 그들이 받는 신체접촉에 관련하여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함으로써 신체접촉의 특정한 유형의 의미를 학습할 수 있다. 가령, 사람들이 특정 맥락에서 특정한 방식(예를 들어, 사랑스럽게 껴안는 것)으로 신체접촉을 받고,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관찰한다면, 영아는 관찰된 신체접촉의 유형이 특정한 어떤 것을 전달한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아는 인지과정을 통해 신체접촉으로부터 의미를 이끌어 낸다. 전통적으로 인지 항목에 해당하는 4가지 과정인, 불일치(모순)과정, 기억과정, 맥락적 단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주의집중 과정 등이 신체접촉으로부터 의미를 이끌어 내는 것에 영향을 준다. 각각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영아가 신체접촉으로부터 어떻게 의미를 도출해 내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불일치 과정에 의하면, 영아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적절하게 벗어나는 자극이나 기억을 통합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요구하는 자극('노력이 필요한 동화')이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억에 존재하는 자극은 정적인 정서를 초래시킨다(Kagan, 1971). 반면에 영아의 기억과 갈등을 강하게 야기시키는 사건이나, 어떤 면에서는 친근하지만 과거 경험과 불일치 되는 사건은 부적인 정서를 산출시킨다(Hebb, 1946).

영아는 질적으로 비슷한 신체접촉에 습관화되어질 수 있다. 만약 불일치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우, 돌보는 사람이 신체접촉의 초기 형태로부터 약간 다른 신체접촉(가령, 현존하는 도식에

새로운 자극을 영아가 동화할 수 있는)을 한다면 영아는 정적 정서를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돌보는 사람이 영아의 내적 도식과 적극적으로 갈등상태에 있는 신체접촉을 한다면 부정적 정서를 초래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엄마가 수유를 하면서 항상 볼이나 이마에 뽀뽀를 하거나 부드럽게 볼을 어루만지는 엄마에 대한 경험을 가진 영아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 만약 엄마가 수유 상황에서 이전에 했던 것과는 다른 유형의 신체접촉, 즉 볼을 세게 꼬집는다거나, 찰싹 때리는 등의 신체접촉을 한다면, 영아는 불쾌감이나, 공포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일치 과정은 특정 정서의 발생이나 정보의 특정 유형 중 어느 하나를 설명하는데 불충분하다(Witherington et al., 2001). 게다가 영아에게 같은 신체접촉의 형태가 경험되어도 다양한 맥락적 요소에 의존하여 뚜렷한 다른 정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처럼 불일치 과정은 신체접촉으로부터 의미를 도출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기억과정에 의하면, 영아는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촉각적 자극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의 촉각적 경험을 끌어낸다. 기억과정이 촉각적 형태와 그것의 의미를 기억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아도 신체접촉이 수행되는 특정한 맥락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촉각적 경험에 대한 특정 맥락에 대한 기억은 제시된 촉각 자극에 대한 의미 부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령, 영아는 조모나 조부로부터 촉각적 자극을 받는 맥락에서 신체접촉의 특정한 의미를 기억 속에 부호화하고 저장할 수 있다. 만약 신체접촉의 똑같은 형태가 일주일 후에 조부가 한다면 영아는 촉각적 자극의 의미를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신체접촉이 엄마나 아빠에 의해 행해지면, 같은 신체접촉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예를 통해 맥락적 요소에 대한 영아의

기억이 주어진 상황에서 신체접촉의 특정한 형태에 어떻게 의미를 주는가를 알 수 있다.

맥락적 단서에 대한 평가과정에 의하면 촉각적 자극이 행해진 맥락에 대한 영아의 평가가 신체접촉의 의미에 영향을 준다. 똑같은 신체접촉의 형태가 그것이 행해진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가령, 손위로 살짝 치는 신체접촉이 아동이 잘못된 일에 대해 벌을 받는 맥락에서 그리고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 행해지면, 아동은 이런 신체접촉에 대해 두 가지의 다른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

주의집중 과정에 의하면, 영아는 주의집중에 의해 이용 가능한 정보의 막대한 양으로부터 제한된 정보의 양을 처리한다. 가령, 5개월의 신체접촉을 경험한 영아는 엄마의 얼굴보다 엄마의 손을 시각적으로 집중했다(Stack & Muir, 1990). 시각적 감각양식 이외에도 영아는 촉각적 감각양식을 포함한 다른 감각 양식적 자극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두 개의 다른 촉각적 형태가 동시에 수반될 때(가령, 영아의 등을 반복적으로 쓰다듬어 주면서 발바닥을 쓰다듬어 주는 등), 영아는 하나의 자극을 무시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신체접촉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따라서 주의를 기울였던 촉각적 형태의 의미는 즉각적 맥락이나 미래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언급된 기제는 모든 경우에서 신체접촉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다. 가령, 팔을 꼬집힌 영아의 고통은 위의 세 가지 기제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신체접촉이 야기하는 감각적 특성, 즉 이 경우처럼 신경 말단에 아픔을 야기시키는 반응은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영아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이전에 언급했던 의미 부여에 대한 잠재적 기제와 연합하여 생각해 볼 때, 의미가 신체접촉으로부터 어떻게 유발되는가에 대한 물음은 복잡한 대답을 요구한다.

신체접촉이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여 의사전달적 기능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촉각적 의사전달을 개념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경험적 연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현 논문에서는 Hertenstein이 제안한 모델(2002)을 토대로, 촉각적 의사전달에 대한 개념화를 설명하려고 한다.

VI. 촉각적 의사전달 기능에 대한 모델

앞에서 언급된 신체접촉에 대한 고찰에 근거하여 Hertenstein(2002)이 제안한 모델을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예비적인 모델에 불과하므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신체접촉의 의사전달적 기능을 밝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체접촉이 영아-돌보는 사람간의 의사전달 체계에서 독특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영아가 받는 촉각적 자극이 여러 개의 감각 양식으로 구성된 의사전달체계의 맥락 내에서 일어나므로, 영아-돌보는 사람의 의사전달 체계를 통합된 총체로서 이해하려면 중다 감각 양식으로 구성된 신체접촉이 의사전달체계의 맥락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의사전달 체계는 역동적이고 상호 조절적인 연합적 기업이다(Fogel & Lyra, 1997). 양방향적이고 상관적인 의사전달의 특징이 촉각적 감각 양식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미 언급했듯이 신체접촉을 하려면 신체접촉을 받게 된다(Merleau-Ponty, 1962). 영아는 신체접촉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의사전달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촉각적 의사전달의 모델은 영아 내에서 또는 돌보는 사람 내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두 사람 사이에서 공평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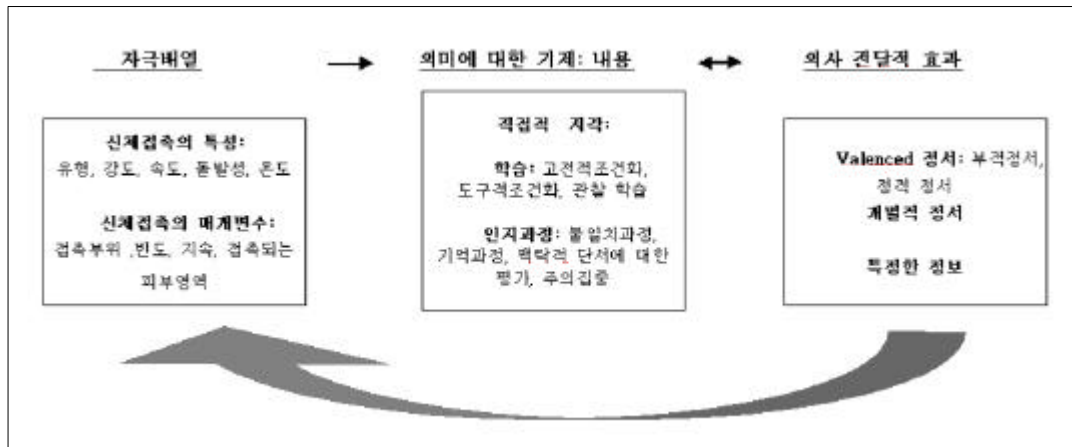


그림 1. 촉각적 의사전달의 모델(Hertenstein, 2002)

그림 1에서 보면 신체접촉의 특성과 매개변수들은 복잡한 촉각적 형상을 구성하여, 영아를 둘러싼 맥락과 연관되어 영아에게 의미를 준다. 맥락은 신체접촉으로부터 의미를 이끌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적 가치를 갖으며, 의사전달적 기능에 영향을 준다. 가령, 위협적 사건이 있는 후에 즉각적으로 아동의 등을 쓰다듬는 것은 아동이 과제 수행 후에 받는 똑 같은 자극과 비교하여 다른 의미를 갖는다.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맥락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돌보는 이가 영아에게 의사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각양식은 촉각적 자극 상황(가령, 돌보는 이의 얼굴과 음성적 표현)을 더 잘 설명해주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영아를 둘러싸고 있는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인 생태학적 원천도 촉각적 자극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촉각적 의사전달에 피소드를 선행하는 사건들(즉각적으로 그리고 훨씬 먼저)이 신체접촉의 궁극적인 의미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 가령, 우울증을 보이는 엄마의 영아들은 그렇지 않은 엄마의 영아들보다 SF

상황 동안 신체접촉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Pelaez-Nogueras et al., 1996a).

이처럼 맥락적 요소들은 영아가 신체접촉을 통해 의미를 가지도록 하는 기제에 대해 여과 기능을 한다. 이런 기제는 촉각적 자극과 맥락과 연결되어 신체접촉의 다양한 의사전달적 효과를 초래시킨다. 의사전달적 기능을 하는 Valenced emotion, 개별적인 정서 그리고 특정한 정보는 신체접촉의 다른 의사전달적 기능(가령, 기분, 내적 조절)과도 연관성을 갖는다.

촉각적 의사전달 모델은 양방적이고 역동적이므로, 신체접촉의 의사전달적 효과는 영아가 경험하게 될 신체접촉의 특성과 매개변수에 영향을 준다. 가령, 민감한 돌보는 사람이 바람직한 방식으로 신체접촉을 한다면, 미래에도 같은 또는 비슷한 신체접촉을 하는 경향이 있다. 대조적으로 신체접촉이 바람직한 의사전달적 효과를 갖지 못한다면 돌보는 사람은 미래에도 그런 형태의 신체접촉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신체접촉이 영아에게 미치는 효과는 영아가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미래에 받게 될 신체접촉의 특성

과 매개변수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영아가 경험하는 신체접촉의 특성과 매개변수가 다르며 맥락 또한 다르다. Eibl-Eibesfeldt(1989)의 보고에 의하면 많은 부족사회의 어머니는 애정의 표현으로 자녀의 생식기를 쓰다듬는다. 이것은 다른 많은 문화권의 영아와 비교해 볼 때, 주요한 질적인 매개변수적 차이이다. 또 다른 예로써 Efe족, Kung족의 영아는 서양사회의 영아들과 비교하여, 더 많은 신체접촉을 받는다(Konner, 1976; Tronick, 1995). 이처럼 영아마다 경험하는 맥락과 신체접촉의 매개변수가 다르므로 신체접촉의 의사전달 기능을 설명하는 것은 더욱 복잡한 차원을 요하는 문제이다.

영아가 신체접촉으로부터 의미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기제에서도 개인차가 나타난다. 앞에서 설명되었듯이 직접적인 지각, 학습, 그리고 인지과정에서의 개인차는 신체접촉의 의사전달적 효과에서의 차이를 초래시킨다. 즉, 똑 같은 맥락에서 똑 같은 촉각적 자극이 매우 다른 의사전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접촉의 의사전달적 효과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그리고 환경적 요소(그리고 둘 간의 상호작용)를 입증하는 경험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영아 기질과 중추 신경계 발달이 신체접촉의 의사전달적 효과에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일차적인 생물학적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출생시 저 체중인데다 예정일 보다 먼저 태어난 영아는 연약한 신경계의 기능으로 신체접촉에 대한 반응을 조절할 능력이 부족하다(Als et al., 1986). 다른 연구에서도 미리 태어난 영아는 신체접촉에 대해 더 낮은 역치를 갖으며, 어떤 유형의 접촉은 거부하려는 반응을 보인다(Anderson, 1986). 생물학적 요소 이외에도 영아의 일반적인 상호작용적 역사(촉각적 자극에 대한 역사를 포함하는)와 맥락적 요소가 신체접촉의 의사전달적

효과에서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촉각적 의사전달 모델에 대한 타당성은 신체접촉의 의사전달적 기능을 서술하고 이런 기능에 근거하는 기제를 조사하는 심도 있는 연구에 의해서 검토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체접촉의 의사전달 기능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정립시키기 위해 앞으로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체접촉의 의사전달적 기능을 밝혀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게 될 것이다.

VII. 앞으로의 연구 방향

발달심리학에서 초기에 가장 연구가 부족했던 영아기에 관한 관심이 1980년대 급증하면서, 많은 연구들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영아기 신체접촉에 의한 촉각적 의사전달 영역은 아직 까지 정립되지 않은 연구 주제으로써, 앞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할 영역이다. 신체접촉이란 돌보는 이가 영아에게 의사전달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 중의 하나를 대표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의사전달에 관심을 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에 의해 간과되었다.

지금까지 신체접촉을 통해 유발되는 4 가지 정서를 살펴보면, 신체접촉의 의사전달적 기능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신체접촉은 영아에게 정적 정서나 부적 정서 또는 개별화된 정서나 특별한 정보를 야기 시키므로, 의사전달의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특별한 유형의 신체접촉과 빈도 등이 이후 영아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연구(Weiss et al., 2001)등을 통해 신체접촉의 물리적 차원인 신체접촉의 특성과 매개변수의 중

요성이 고려되었다. 이처럼 신체접촉의 특정 유형이나 빈도 등의 매개변수가 의사전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면서, 아울러 영아가 신체접촉으로부터 어떻게 의미를 이끌어 내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3 가지 심리학적 기제인 직접적인 지각, 학습, 인지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Hertenstein이 제안한 모델(2002)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신체접촉을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신체접촉의 의사전달적 기능을 밝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문제들을 열거하면서, 현재 본 연구자들이 진행 중에 있는 연구주제들을 간략히 피력함으로써 신체접촉 연구에 대한 진일보한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신체접촉을 통해 영아에게 무엇이 전달되는가와 신체접촉으로부터 어떻게 의미가 유발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언급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로 신체접촉에 대한 특성과 매개변수를 조사할 신뢰할 만한 시스템을 개발시켜야 한다. 몇 가지 신체접촉을 분석하는 코딩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Stack 와 동료들(2001)에 의해 개발된 CITS(the caregiver-infant touch scale)는 아직 출판되지 않았고, Queen's University Observational Video Coding System(Muir, 2002)도 표준화되지 않았다. 이런 시스템은 돌보는 이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비디오로 담아 영아에게 하는 신체접촉 유형, 강도, 지속, 접촉 부위, 빈도 등을 초 단위로 계열 분석하는 코딩시스템으로 아직까지 표준화된 것이 없어 신체접촉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둘째로 영아에게 의사전달을 위하여 돌보는 사람(엄마와 아버지)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신체접촉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서술적 자료를 모으는 일이다. 국내에서도 영아기 발달에 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한국 어머니가 영아들에게 하는 신체접촉의 유형과 그 빈도 등에 관한 기술적인 연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전국적인 규모로 서울·경기, 충청, 영남, 호남에서 총 1120명의 0-3세 영아를 가진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에게 하는 신체접촉 유형과 상황을 알아보았다. 한국 엄마들이 사용하는 접촉 유형을 35가지이며,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상황은 17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김수정, 곽금주 등, 2003) (표 1, 2 참조).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신체접촉이 사용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실시 중에 있다. 영아에게 하는 신체접촉 유형에 대한 발달적 분석은 돌보는 이가 신체접촉을 어떻게 언제 사용하는 지를 밝히는 것을 도와줄 뿐 아니라, 영아의 촉각적 삶에서 개인차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신체접촉에 대한 문화적 연구는 영아-돌보는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촉각적 자극의 보편적이고 문화적으로 특정한 특성과 매개변수를 밝히는데 한층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로, 실제 삶에서 촉각적 자극 배열과 영아 행동, 특히 정서적 배열 간의 기능적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신체접촉을 하며, 영아를 달래는 상황에서는 어떤 유형의 신체접촉이 효과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표준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문화와 개인적 특성마다 신체접촉 특성이나 매개변수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돌보는 이의 접촉 유형과 영아의 정서 상태 조절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 1.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상황(%)

상황 \ 개월	3m	6m	9m	12m	15m	18m	21m	23m	26m	28m	30m	32m	36m
노는 상황	62.9	54.8	57.5	47.2	50.0	68.4	50.7	48.6	62.2	50.6	44.2	43.8	42.5
재울 상황	40.0	41.1	56.3	48.6	41.7	46.1	40.6	36.1	35.1	45.5	31.2	41.1	51.3
아플 상황	21.4	12.3	31.3	27.8	27.8	25.0	30.4	25.0	24.3	37.7	18.2	20.5	23.8
애정 표현 상황	52.9	58.9	70.0	70.8	69.4	68.4	71.0	73.6	67.6	55.8	64.9	69.9	73.8
목욕시키는 상황	5.8	1.4	3.8	2.8	2.8	1.3	7.2	1.4	1.5	2.6	2.6	0.0	2.6
노래 부르는 상황	1.4	2.7	1.3	0.0	0.0	2.6	0.0	0.0	1.4	0.0	0.0	0.0	0.0
배변, 기저귀 채우는 상황	5.7	5.5	2.5	1.4	0.0	0.0	4.3	2.8	0.0	0.0	0.0	0.0	0.0
짜증을 내거나 보채거나 우는 상황	2.9	1.4	2.5	1.4	0.0	3.9	0.0	0.0	0.0	1.3	1.3	1.4	1.3
책 읽는 상황	0.0	0.0	1.3	1.4	1.4	3.9	1.4	0.0	5.4	3.9	2.6	4.1	2.5
밥 먹는 상황	0.0	0.0	0.0	0.0	1.4	2.6	0.0	0.0	0.0	1.3	2.6	0.0	0.0
TV보는 상황	2.2	0.0	0.0	0.0	1.4	0.0	0.0	0.0	2.8	3.9	1.3	1.4	0.0
야단을 치거나 야단을 받고 난 상황	0.0	0.0	0.0	0.0	0.0	0.0	0.0	1.4	0.0	3.9	0.0	2.8	3.8
수유 상황	5.7	12.4	2.6	4.2	0.0	1.3	0.0	1.4	0.0	0.0	0.0	0.0	0.0
산책 상황	0.0	1.4	1.4	1.4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잠에서 깨었을 상황	1.4	1.4	0.0	0.0	0.0	0.0	0.0	0.0	0.0	0.0	2.6	0.0	3.8
운동을 하는 상황	0.0	0.0	0.0	1.4	0.0	0.0	0.0	0.0	0.0	0.0	0.0	0.0	0.0
옷갈아 입히는 상황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3

넷째로, 신체접촉이 영아의 장기적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종단적 연구는 거의 마사지 치료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 도구적인 측면에서 마사지 치료에 초점을 둔 연구도 중요하지만, 치료적 영역 외에 신체접촉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영아에게 영향을 주는가가 조사되어야 한다. 즉 신체접촉 유형과 빈도가 이후 영아의 애착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아울러 전반적인 사회적·정서적 행동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자들은 신체접촉 유형이나 빈도가 이후 애착에 주는 영향에 대해 연구 중에 있다.

다섯째로, 연구가들은 신체접촉을 통해 의사전달을 시도하는 메시지가 영아에 의해 적절히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야기되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의사전달의 부조화가 영아의 즉각적 행동과 장기적인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Tronick, 1989). 가령, 영아가 손으로 위험한 것(예를 들어, 영아가 배설한 대변이나 소변 또는 뜨거운 물 등등)을 만지려고 할 때, 돌보는 이는 만지지 못하도록 영아의 팔을 강하게 잡는다. 영아가 이런 메시지를 적절히 해석하지 못하고 반항하면서 그것들을 쏘거나 만졌을 때, 영아는 해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런 영아의 행동에 대한 돌보는 이의 야단이나 체벌 등은 이후 영아

유형	개월	3m	6m	9m	12m	15m	18m	21m	23m	26m	28m	30m	32m	36m
----	----	----	----	----	-----	-----	-----	-----	-----	-----	-----	-----	-----	-----

뽀뽀하기	75.7	84.9	81.3	81.9	80.6	86.8	89.9	81.9	86.5	76.6	77.9	84.9	83.8
볼 쓰다듬기	52.9	54.8	51.3	50.0	40.3	42.1	46.4	38.9	45.9	41.6	41.6	35.6	41.3
머리 쓰다듬기	54.3	58.9	53.8	59.7	50.0	53.9	56.5	48.6	52.7	50.6	45.5	45.2	52.5
들어올렸다 내리기	32.9	60.3	53.8	56.7	48.6	48.7	49.3	45.8	45.9	37.7	36.4	34.2	33.8
살짝 꼬집기	10.0	8.2	20.0	18.1	22.2	19.7	26.1	20.8	18.9	14.3	9.1	17.8	11.3
간질이기	25.7	60.3	58.8	52.8	43.1	50.0	53.6	41.7	58.1	35.1	40.3	43.8	42.5
꼭 안기	64.3	68.5	77.5	70.8	77.8	78.9	88.4	69.4	75.7	74.0	71.4	75.3	78.8
살포시 안기	50.0	50.7	57.5	45.8	43.1	47.4	50.7	43.1	40.5	37.7	28.6	39.7	31.3
흔들기	38.6	34.2	41.3	29.2	33.3	30.3	37.7	30.6	29.7	19.5	16.9	24.7	22.5
찌르기	7.1	11.0	18.8	18.1	22.2	27.6	30.4	23.6	18.9	15.6	10.4	17.8	12.5
잡기	20.0	24.7	30.0	26.4	26.4	28.9	33.3	29.2	23.0	22.1	23.4	26.0	22.5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38.6	52.1	46.3	47.2	44.4	36.8	37.7	41.7	48.6	32.5	35.1	32.9	27.5
마시지, 지압	22.8	19.2	17.6	11.1	6.9	9.2	11.6	2.8	1.4	5.2	6.5	5.5	3.8
엉덩이 두드리기	0.0	1.4	5.1	2.8	4.2	6.6	0.0	4.2	1.4	5.2	7.8	1.4	1.3
물기(볼 깨물기)	0.0	2.7	3.8	5.6	1.4	6.6	0.0	1.4	2.7	5.2	0.0	5.5	3.8
업기	0.0	2.7	1.3	5.6	4.2	5.3	2.9	9.7	5.4	3.9	9.1	6.8	8.8
등, 배 만지고 토닥토닥하기	0.0	2.7	0.0	1.4	1.4	5.3	2.9	0.0	1.4	6.5	1.3	1.4	8.8
얼굴 대고 코 비비기	0.0	2.7	0.0	1.4	0.0	0.0	0.0	0.0	0.0	1.3	2.6	4.1	0.0
이마 대고 비비기	0.0	0.0	0.0	2.8	0.0	0.0	0.0	0.0	1.4	1.3	2.6	0.0	1.3
목마 태우기, 무등 태우기	0.0	1.4	0.0	4.2	2.8	2.6	2.9	4.2	1.4	0.0	1.3	1.4	5.1
손발 만지기	2.8	0.0	0.0	1.4	0.0	0.0	0.0	1.4	0.0	1.3	0.0	0.0	0.0
배 위에 앉히기	2.8	1.4	0.0	2.8	0.0	0.0	0.0	0.0	0.0	1.3	0.0	0.0	0.0
볼, 얼굴 대고 비비기	4.3	4.1	5.1	2.8	2.8	5.3	1.4	2.8	2.7	1.3	3.9	4.1	3.8
귀 만지기	0.0	2.7	0.0	1.4	1.4	0.0	1.4	0.0	0.0	1.4	0.0	0.0	1.3
끌어안고 뛰어 다니기	0.0	1.4	1.3	0.0	0.0	0.0	0.0	0.0	1.4	0.0	0.0	0.0	0.0
코 만지기	0.0	0.0	1.3	0.0	0.0	0.0	0.0	1.4	0.0	0.0	0.0	0.0	0.0
다리에 올려 비행기 태우기	0.0	0.0	0.0	0.0	0.0	0.0	0.0	1.4	1.4	2.6	2.6	2.8	0.0
물구나무 태우기	0.0	0.0	0.0	0.0	0.0	2.6	0.0	2.8	2.7	0.0	0.0	0.0	0.0
몸에 입대고 바람불어소리내기	4.3	6.8	2.5	2.8	4.2	3.9	1.4	1.4	4.1	1.3	1.3	0.0	0.0
말 태우기	0.0	0.0	1.3	1.4	1.4	1.3	1.4	1.4	2.7	0.0	0.0	1.4	2.6
안고 방글방글 돌기	0.0	0.0	0.0	1.4	1.4	0.0	1.4	4.2	2.7	2.6	1.3	1.4	0.0
안고 뒹굴기	0.0	1.4	0.0	0.0	1.4	2.6	0.0	0.0	0.0	1.3	1.3	2.7	1.3
발등에 올리고 걷기	0.0	0.0	0.0	0.0	0.0	0.0	0.0	2.8	0.0	0.0	1.3	1.4	0.0
몸으로 미끄럼 태우기	0.0	0.0	0.0	0.0	0.0	1.3	0.0	0.0	0.0	0.0	1.3	0.0	1.3
안고 흔들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3

의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극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돌보는 이의 신체접촉으로부터 적절한 의미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영아들에 대한 중단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신체접촉은 중다 감각적 의사전달을 구성하는 영아-돌보는 사람간의 관계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단 하나의 감각, 이 경우는 신체접촉에만 초점을 둔다면, 영아-돌보는 사람 간의 의사전달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에 직면한다. 즉 신체접촉의 발달적 변화와 안정성뿐 아니라 그것이 양 방향성에 의해 특징되는 역동적 과정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영아에 대한 신체접촉의 의사전달적 기능을 분명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신체접촉 분야의 연구들이 병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체접촉의 효과만을 분리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미래 연구는 위에서 언급된 다섯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과 신체접촉이 중다 감각적인 의사전달적 맥락에서 일어나며, 신체접촉의 여러 분야와의 연구를 병합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총체적 차원에서의 통합적 연구를 통해 신체접촉에 대한 의사전달적 효과를 밝혀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수정, 곽금주, 장유경, 성현란, 심희옥 (2003). 영아기 발달에 따른 한국 엄마의 신체접촉 양상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75-97.

Ainsworth, M.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Als, H., Lawhon, G., Brown, E., Gibes, R., Duffy, F. H., McAnulty, G., & Blickman, J. G. (1986). Individualized behavioral and environmental care for the very low birth weight preterm infant at high risk for bronchopulmonary dysplasia: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and developmental outcome. *Pediatrics*, 78, 1123-1132.

Andersen, P. A. (1991). When one cannot not communicate: A challenge to Motley's traditional communication postulates. *Communication Studies*, 42, 309-325.

Andersen, P. A. (1986). Sensory intervention with the preterm infant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0, 19-26.

Bandura, A. (1965). Influence of model's reinforcement contingencies on the acquisition of imitative respon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589-595.

Barnett, K. (1972). A theoretical construct of the concepts of touch as they relate to nursing. *Nursing Research*, 21, 102-110.

Bavelas, J. B. (1990). Behaving and communicating: A reply to Motley. *Western Journal of Speech Communication*, 54, 593-602.

Bretherton, I., Biringen, Z., Ridgeway, D., & Maslin, C. (1989). Attachment: The parental perspective. Special Issue: Internal representations and parent-infant relationship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0, 203-221.

Brossard, L., & Decarie, T. (1968). Comparative reinforcing effects of eight stimulations on the smiling responses of infa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9, 51-60.

Campos, J. J., Mumme, D. L., Kermoian, R., &

- Campos, R. (1994). A functionalist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emo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84-303.
- Dickson, K. L., Walker, H., & Fogel, A.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smile type and play type during parent-infant play. *Developmental Psychology*, 33, 925-933.
- Eibl-Eibesfeldt, I. (1989). *Human Ethology*. New York: Aldine de Gruyter.
- Field, T. M. (2002). Infants' Need for Touch. *Human Development*, 45, 100-103.
- Fogel, A., Lyra, M.C.D.P. (1997). Dynamics of development in relationships. In F. Masterpasqua & P. A. Perna (Eds.), *The psychological meaning of chaos: Translating theory into practice* (pp. 75-94): Washington, DC, US.
- Geldard, F. A. (1960). Some neglected possibilities of communication. *Science*, 131, 1583-1588.
- Gibson, J. J. (1979).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Boston: Houghton Mifflin.
- Gibson, J. J. (1969). *Principles of Perceptual Learning and Development*. East norwalk, CT: Appleton-Century-Crofts.
- Hertenstein, M. J.(2002). Touch: Its Communicative Functions in Infancy. *Human Development*, 45, 70-94.
- Hertenstein, M. J., & Campos, J.J. (2001). Emotion regulation via maternal touch. *Infancy*.
- Hinde, R. A. (1997). Relationships: A dialectical perspective. Hove: Psychology Press.
- Kagan (1971). *Change and continuity in infancy*. New York: Wiley
- Konner, M. J. (1976). Maternal ca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among the !Kung. In R.B. Lee & I. Devore (Eds.), *Kal ahari hunger-gatherers: Studies of the !Kung San and their neighbors* (pp. 218-245).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evenson, R. W. (1992). Autonomic nervous system differences among emotions, *Psychological Science*, 3, 23-27.
- Lorenz, C. (1943). Die angeborenen Formen möglicher Erfahrung. *Zeitschrift für Tierpsychologie*, 5, 233-409.
- Maurer, D., & Maurer, C. (1988). *The world of the newborn*. New York: Basic Books.
- Merleau-Ponty, M. (1962). *Phenomenology of perception* (Colin Smith, Trans.). New York: Humanities Press.
- Montagu, A. (1986). *Touching: The human significance of the skin*. (3rd ed.). New York: Harper & Row.
- Muir, D. W. (2002). Adult Communications with Infants through Touch: The Forgotten Sense. *Human Development*, 45, 95-99.
- Peláez-Nogueras, M., Field, T., Gewirtz, J. L., Cigales, M., Gonzalez, A., Sanchez, A., & Richardson, S.C. (1997). The effects of systematic stroking versus tickling and poking on infant behavio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69-178.
- Peláez-Nogueras, M., Field, T. M., Hossain, Z., & Pickens, J. (1996a). Depressed mothers' touching increases infants' positive affect and attention in still-face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67, 1780-1792.
- Peláez-Nogueras, M., Gewirtz, J. L., Field, T., & Cigales, M. (1996b). Infants' preference for touch stimulation in face-to-face interaction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7, 199-213.
- Reite, M. (1990). Touch, attachment, and health: Is

- there a relationship? In K.E. Barnard & T.B. Brazelton (Eds.), *Touch foundation of experience: Full revised and expanded proceedings of Johnson & Johnson Pediatric Round Table X* (pp. 195-225); Madison, CT.
- Sroufe, L. A. (1996). *Emotional development: The organization of emotional life in the early yea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ck, D.M. (2001). The salience of touch and physical contact during infancy: Unraveling some of the mysteries of the somaesthetic sense. In A. Fogel & G. Bremner (Eds.), *Blackwell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London: Blackwell.
- Stack, D.M., & LePage, D.E. (1996). Infants' sensitivity to manipulations of maternal touch during face-to-face interactions. *Social Development*, 5, 41-55.
- Stack, D. M., LePage, D. E. Hains, S. M. J., & Muir, D. W. (2001). *Differential touch as a function of instruction during mother-infant interactions: Application of the caregiver-infant touch scale (CITS)*. Unpublished manuscript, Concordia University.
- Stack, D.M., Muir, D.W. (1990). Tactile stimulation as a component of social interchange: New interpretations for the still-face effect.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 131-145.
- Stack, D.M., Muir, D.W. (1992). Adult tactile stimulation during face-to-face interactions modulates five-month-olds' affect and attention. *Child Development*, 63, 1509-1525.
- Stepakoff, S., Beebe, B., & Jaffe, J. (2000). *Mother-infant tactile communication at four months: Infant gender, maternal ethnicity, and maternal depression*. Post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ant Studies, Brighton, England.
- Stern, D.N. (1985). *The interpersonal world of the infant*. New York: Basic Books.
- Tronick, E.Z. (1989). Emotions and emotional communication in infants. *American Psychologist*, 44, 112-119.
- Tronick, E.Z. (1995). Touch in mother-infant interaction. In T.M. Field (Ed.), *Touch in early development* (pp. 53-65). Mahwah, NJ: Erlbaum.
- Walker-Andrews, A.S. (1997). Infant's perception of expressive behaviors: Differentiation of multimodal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1, 437-456.
- Watzlawick, P., Beavin, J.H., & Jackson, D.D. (1967). *Pragmatics of human communication: A study of interactional patterns, pathologies, and paradoxes*. New York: W.W. Norton.
- Weiss, S.J. (1992). Psychophysiologic and behavioral effects of tactile stimulation on infants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5, 93-101.
- Weiss, S.J., & R. Campos, R. (1999). Touch. In C.A. Lindeman & M.McAthie (Eds.), *Fundamentals of contemporary nursing practice* (pp.941-962). Philadelphia: W.B. Saunders Company.
- Weiss, S.J., Wilson, O., Hertenstein, M.J., & Campos, R. (2000). The tactile context of a mother's caregiving: Implications for attachment of low birth weight infan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3, 91-111.
- Weiss, S. J., Wilson, P., Seed, J., Paul, S. M.(2001). Early tactile experience of low birth weight children: Links to later mental health and social adaptatio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0, 93-115.
- Weinberg, M. K., & Tronick, E. Z. (1994). Beyond the face: An empirical study of infant affective

- configurations of facial, vocal, gestural, and regulatory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503-1515.
- Witherington, D.C., Campos, J.J., & Hertenstein, M.J. (2001). Principles of emotion and its development in infancy. In A. Fogel & G. Bremner(Eds.), *Blackwell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London: Blackwell.
- Wolff, P.H. (1963). Observations on the early development of smiling. In B.M. Foss (Ed.), *Determinant of infant behavior II* (pp. 113-138). London: Methuen & Co.

Review of researches of touch as a communication channel in Infancy

Suchung Kim

Keumjoo Kwak

Dep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of touch as a communication channel remains one of the least researched areas in the infant interaction literature. In the present article, the communicative functions that the tactile modality serves as it relates to how adults touch infants, are discussed. Two fundamental questions are addressed. First, what is communicated to infants by touch from their caregivers. Second, how does meaning come about from the touch that adults administer to infant? In discussing the fact that touch is capable of communicating valenced and discrete emotions as well as specific information, this question is addressed by discussing the physical dimensions of touch and three mechanisms by which meaning from touch comes about. Based on the reviews, the model of caregiver-infant tactile communication proposed by Herenstein(2002) is discussed. The model as a heuristic, may help us conceptualize the domain of tactile communication. Finally, The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of the touch are discussed.

Keywords: infancy, emotional communication, tactile stimulation, mother-child communication, touch